

# 향기로운 예물

기업 085-056206-04-111(대한예수교장로회 성령교회)  
주경, 주일, 정기 워크(이공/리극종류 예 총리등주경, 총리등성만)

## ☞ 십일조연구 기업 085-056206-04-030(대한예수교장로회 성령교회)

이진우(최선미) 윤희진 이필래 김윤주 최유경 김경자 김형국(이오순) 맹지혜 박순자(이동수)  
석형기(이희순) 송부현(김영진) 오영순 유호근(손명화) 윤 숙 윤정호(유옥자) 이기자  
이명희(문영원) 이상희 이철숙 이창규(박정순) 이한웅(김순옥) 최정규(김미영)

## ☞ 선교연구 기업 085-056206-04-086(대한예수교장로회 성령교회)

이진우 이필래 강은미 김순옥(이한웅) 맹지혜(임기빈) 박복혜 손명화(유호근) 송부현(김영진) 윤 숙  
윤영준(박진숙) 윤정호(유옥자) 이경자(주경덕) 이기자 이명희(문영원) 이윤옥 이향교 조규래 최선미

## ☞ 감사연구 기업 085-056206-04-047(대한예수교장로회 성령교회)

이필래 김미숙 김병욱(이영숙) 김종익(박애순) 김순화 김형래 박종삼(이명원) 방복순  
석형기(이희순B) 송다혜 송순향(김원경) 안금자 열영분(천세력) 이미자 이종문 이지은(박경배)  
전계자 전순봉 정기성(김순옥) 정영심 채명열 최성현 한공순 유정 루디아여전도회

## ☞ 일천백제연구

이진우 강은미 김민서 김민준 김아미린 김미안 김준주 무명 민족화 박민서 박순자 박영식 방복순  
서로이 서로하 송백현 심순옥 양영옥 양일석 이강우 이경자 이노을 이미자 이상이 이상희 이소은  
이아론 임윤정 정서연 정양학 주성탁 최봉순 최선미 최효자 하세현 홍유정 홍은미 홍준민

## ☞ 월정연구

# 주간 성경연구

24주 · 새벽기도회 본문입니다 ·			
주 일	베드로후서 3장 10절 ~ 18절		
월요일	요바다 1장 1절 ~ 14절	목요일	열왕기하 1장 9절 ~ 18절
화요일	요바다 1장 15절 ~ 21절	금요일	열왕기하 2장 1절 ~ 14절
수요일	열왕기하 1장 1절 ~ 8절	토요일	열왕기하 2장 15절 ~ 25절

<b>월 로 장 로</b>	이태일 정기성 윤조훈		
<b>시 무 장 로</b>	강영성 강병을 최기훈 배경철 임만순 박권재 최성현 윤영준 박종삼 최성걸		
<b>은 퇴 장 로</b>	방현욱 정명원 문영원 천세력 방석태 윤병호 윤정호		
<b>교 역 자</b>	부 목 사	윤희진	
	전 도 사	이필래	
	교육전도사	김선희 김윤주 최유경	
<b>찬 양 대</b>	지 휘 자	할 쉐 루 야 : 김한나 시 온 : 권혜정	
	반 주 자	오르간	심혜윤
		피아노	지애빈 김민지 김미희 심혜윤 최선미 이상희
		클라리넷	박진숙 이난수
	플루트	김민지	
솔 리 스톱	이수경 권혜정		
<b>선 교 사</b>	파송선교사	태 국 : 김정숙	미 집 트 : 김진숙
		수리남 : 안석렬 이성옥	A X 국 : 김혜월
		미 국 : 김다니엘	A X 국 : 이분옥
	미 국 : 최옥희	모 잠 비 크 : 홍두표 강순영	
협력선교사	태 국 : 박영성 정세미	태 국 : 박경환 이순연	
협력교회	제주 대광장로교회, 즐거은교회, 가나교회.		
협력단체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세계선교회(GMS), 서울남노회 목양선교회, 영등포시할 중국세계선교회, 서울남노회 GMS, 서울남노회 미래 자립위원회.		

2024. 06. 09.

의로운 사람을 죽인 헤롯의 죄악

마가복음 6장 14-29절

설교: 이진우 목사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수한 것을 깨달을 때 속히 돌이켜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자기의 잘못을 감추기 위하여 또 다른 잘못된 일을 행하며, 더 큰 죄를 짓는 것은 참으로 머리숙은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은 헤롯 안티파스가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자신의 아내로 취한 일을 공개적으로 책망했습니다. 이 일은 헤롯과 헤로디아에게는 매우 불쾌한 일이었습니다. 결국 이 일로 세례 요한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처럼 그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은 자가 더 큰 죄악의 길로 가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을 통하여 성도는 참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그 교훈은 과연 무엇입니까?

### 1. 책망받을 때 속히 돌이켜야 합니다.

- 세례 요한은 울분이 금하는 결혼을 강행하고, 사회적으로도 부도덕한 악한 행실이었음을 공개적으로 책망합니다. 이에 헤롯은 사람을 앞에서 자신을 수치스럽게 만드는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어 더 이상 공개적인 활동을 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그러나 헤로디아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요한을 죽이고자 합니다. 하지만 헤롯은 백성이 추앙하는 요한을 두려워했고, 그의 책망을 무작정 무시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헤롯은 세례 요한의 책망에 양심의 질림을 느끼고 괴로워했습니다. 헤로디아는 처음부터 요한을 죽이려 하였으나 헤롯은 그의 양심, 그러니까 그의 종교적 공포감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를 악독하게 대하지는 못했습니다. 헤롯은 세례요한이 하나님의 선지자요, 그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문제는 그런 괴로움에도 자신의 행실을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통해 그를 책망하시고 그의 양심을 괴롭게 하심으로 돌이킬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헤롯은 이런 기회들을 놓치고 결국 의로운 자를 죽이는 죄까지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때로 욕망에 이끌려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우리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십니다. 사사기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은혜 가운데 살던 백성이, 자기의 소욕을 따라 살다 죄를 범하고,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채적으로 그들을 깨닫게 하실 때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사사를 세워 당신의 민족을 구원하시고 그 모든 고통에서 건져주셨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이 죄를 지은 자를 징계를 하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의 참 자녀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이 징계하실 때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도, 낙심하지도 말 것을 권면합니다. 만약 우리에게 징계가 임하면 그것이 우리의 마음과 삶을 불편하게 할 수는 있지만, 그 징계가 오히려 우리에게 변화의 기회가 되고, 돌이켜 하나님의 온전한 길로 행하는 은혜의 방편이 될 것입니다.

### 2. 체면치레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체면을 세우는 데 관심을 보입니다. 체면을 의식하면 이처럼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그 정도가 과하면 분수에 맞지 않는 행동으로 결국 낭패를 보기도 합니다. 형편에 맞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허영심 때문입니다. 헤롯은 이처럼 허영이 가득한 자요, 과도한 체면치레에 빠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헤로디아의 딸이 출을 추는 모습을 보며 세상의 쾌락에 홀백 빠졌습니다. 그는 자기 기분에 겨워 사람을 앞에서 그녀가 부탁하는 일이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이에 헤로디아의 딸이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하자 그제야 자신이 엄청난 실언을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26절에 “근심” 한다는 헬라어는 “페릴뤼포스”인데, “매우 슬퍼하며, 걱정한다.” 라는 뜻입니다. 헤롯이 이처럼 근심하고 슬피하며 걱정한 이유는 그에게 종교적 양심이 살아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맹세와 거기 않은 많은 자들로 인했다는 것은 체면을 보존하려는 헤롯의 잘못된 선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양심은 체면에 압도하여 종대한 범죄를 감행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헤롯은 사람을 앞에서 자기의 체면을 세우기 위해 잘못된 일인 줄 알면서도 요한을 참수합니다. 성경에는 헤롯처럼 한 나라 왕이면서도 체면보다 하나님을 더 의식하고 살았던 사람을 보여줍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도 실수했고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 미려한 다윗을 꾸짖으시며 책망하셨고,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들을 때, 자신을 바라보는 산하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선지자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요, 하나님의 엄청난 책망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즉시 자신의 죄를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나단을 통하여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된 다윗은 체면보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했습니다. 때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권리를 내려놔야 할 순간도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의 실수를 깨닫고, 잘못된 것을 알게 되었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혹 잘못이나 죄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 살며 선한 일을 행할 때, 자존심과 체면이 무너지고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성도는 그 어떠한 순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자존심과 체면이 무너지더라도 오직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복된 길임을 결단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헤롯은 세례 요한이 의민인 줄 알면서도 죽였습니다. 그는 세례 요한을 통해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음으로써 용서받을 기회를 놓쳤을 뿐 아니라 사람을 앞에서 체면을 세우느라 세례 요한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사람을 의식하면 이처럼 머리숙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깨닫게 하시는 그곳에서 속히 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는 그 순간,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더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돌이켜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을 우리를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덮어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더욱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나를 돌아오라 부르시는 그 음성에 순응하며 돌이켜 은혜 가운데 머물고,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새롭게 하시며 더 큰 은혜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SINCE 1975

No. 50 - 24

2024. 06. 16.

## 대한예수교장로회

# 성현교회

## Sung - Hyeon Presbyterian Church

표어: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소서!” (로마서 15장 13절)

목표: 1. 진리 파수 2. 천국 일꾼 양성 3. 민족 복음화 4. 세계 선교

동산의 샘

A garden fountain

생수의 우물

A well of living

흐르는 시내

Flowing streams

(아가 4:15)

담 임 목 사

Senior Pastor

이

Yee,

진

Jin

우

Woo

● 08235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33마길 18(개봉동, 성현교회)

● 18, Gyeongin-ro33Ma-gil, Guro-gu, Seoul, Korea

● 교회사무실: 2613-2080 / 2683-2080

● 팩 스: 2689-1230

● 홈 페 이 지: www.sunghyeon.or.kr

# 오전에배

(1부) 오전 7시	사회: 박 종 삼 장 로
(2부) 오전 10시	인도: 이 진 우 목 사
(3부) 오전 11시 30분	인도: 이 진 우 목 사
묵 도	합璧루야찬양대 (Silent Prayer)
신 앙 고 백	사도신경 다 같 이 (The confession of the Apostles Creed)
찬 양	찬송가 300(통406)장 다 같 이 (Praise) 내 맘이 낙심되며
대 표 기 도	[1부]김경엽 집사 [2부]최기훈 장로 [3부]박종삼 장로 (Prayer)
성 경 봉 독	마가복음 6장 30~44절(신약 p.63) 인 도 자 (Scripture)
찬 양	[1,2부] 달고 오묘한 그 말씀(찬송가200장) 다 같 이 (Anthem) [3부] 주의 빛 안에 살면(Doan Besig) 합璧루야찬양대
설 교	오병이어 기적 속에 담긴 의미 이 진 우 목 사 (Sermon)
헌 금 봉 헌	내게 있는 향유 옥합 다 같 이 (Offering)
새 신 자 환 영	다 같 이 (Introduce new comer)
봉 헌 기 도	이 진 우 목 사 (Offering Prayer)
교 회 소 식	이 진 우 목 사 (Announcement)
찬 양	찬송가 304(통404)장 다 같 이 (Praise)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축 도	이 진 우 목 사 (Benediction)
예 배 후 찬 양	찬송가 351(통389)장 믿는 사람들은 다 같 이 (Marching on Praise)

\*우리교회는 **개역개정판 성경**을 사용합니다.  
 \*현금은 들어오실 때 **현금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핸드폰은 예배시 꼭 전원을 **꺼주시거나** 무음으로 바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 찬양예배

오후 3시	사회: [드보라여전도회 교문] 최 기 훈 장 로
묵 도	시 온 찬 양 대
성 시	시편 46편 11절 사 회 자
간 구	사 회 자
찬 양	찬송가 314(통511)장 사 회 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기 도	[드보라여전도회 회장] 임 영 특 권 사
성 경 봉 독	집언 8장 1~21절(구약 p.917) [드보라여전도회 부사] 김 해 숙 권 사
찬 양	시 온 찬 양 대
설 교	마음을 다해 사랑해야 할 것 이 진 우 목 사
예 들 봉 헌	[드보라여전도회 서기] 전 순 봉 권 사
묵 송	드보라여전도회
광 고	담 임 목 사
찬 양	찬송가 320(통350)장 다 같 이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축 도	이 진 우 목 사

# 수요기도회

오후 7시 30분	인도: 이 진 우 목 사
찬 양	다 같 이
성 경 봉 독	로마서 3장 23~28절 (신약 P.242) 인 도 자
설 교	칭의와 그 유익 이 진 우 목 사

# 예배시간

주일1부예배	주 일 오전 7:00 분당	영 아 유 치 부	주 일 오전 10:00 제1교육관
주일2부예배	주 일 오전 10:00 분당	유 초 등 부	주 일 오전 10:00 유치등부실
주일3부예배	주 일 오전 11:30 분당	중 고 등 부	주 일 오전 10:00 로뎀나무
주일찬양예배	주 일 오후 3:00 분당	청 년 부	주 일 오후 1:30 로뎀나무
수 요 기 도 회	수요일 오후 7:30 분당	소 망 부	토요일 오전 10:30 분당
금 요 기 도 회	금요일 오후 9:00 분당	전 도 특 공 대	목요일 오후 2:00 교회식당
새 벽 기 도 회	매 일 오전 5:00 분당		

# 드보라여전도회 헌신예배

# 교회소식

## ◎ 광고

- [드보라여전도회 헌신예배]  
오늘(16일) 찬양예배는 "드보라여전도회 헌신예배"입니다.
- [브라카와 함께 하는 찬양예배]  
다음 주일(23일) 찬양예배는 "브라카와 함께 하는 찬양예배"로 합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 [교회 설립 49주년 감사헌금]  
교회 설립 49주년 감사헌금을 합니다. 이번 헌금은 교회 부흥을 위하여 사용합니다. 준비된 봉투로 6월 마지막 주일까지 자유롭게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회 도색작업 및 배수로 공사]  
17일(월)~21일(금)까지 교회 도색작업 및 배수로 공사를 합니다. 안전하게 진행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도특공대]  
전도특공대가 매주 목요일 2시 지역 전도를 합니다. 전도 동참하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목요일 1시 50분까지 교회 식당으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일예배/새벽기도회/수요기도회/금요기도회/목장예배]  
예배와 기도 회복을 위하여 주일예배와 새벽기도회, 수요기도회, 금요기도회, 각 목장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매달 첫 주일 찬양예배는 연합 초원/목장예배로 진행합니다.
- [이달의 책]  
6월의 책은 "인문학을 하나님께"(한재욱 목사/규장)입니다. 계시편을 참고하시어 교회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교회 신청시 13,500원(정가15,000원)에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6월 교회 행사 안내  
6월 16일(주일) 드보라여전도회 헌신예배  
23일(주일) 브라카와 함께 하는 찬양예배

## ◎ 모임

이 번 주	다 음 주
+ 남전도회 월례회 3부 예배 후/ 본당	
+ 교육위원회 찬양예배 후/ 사무실	

## ◎ 교회를 섬기는 분

	성 단	차	종 식	주방봉사	교회청소
이번주	방천영 청년	김현수 청년	문영원 장로, 이명희 권사/정기성 장로, 심순옥 권사	소망2 고척6 소망3 고척7 사랑1 고척9	루디아 여전도회
다음주	이진우 목사	이기자 권사	김정자 권사 / 최정희 권사	사랑1 고척10 사랑2 개봉1	배을 남전도회

6월	순서	1 부		2 부	3 부	찬 양 예 배	
		사회/인도	기 도	기 도	기 도	사회/인도	기 도
1주( 2일)	박권재 장로	김경국 집사	박종삼 장로	박권재 장로			초원 목장 예배
2주( 9일)	최성현 장로	방원석 집사	최상걸 장로	최성현 장로	배경철 장로		장윤주 집사
3주(16일)	박종삼 장로	김경엽 집사	최기훈 장로	박종삼 장로	최기훈 장로		임영득 권사
4주(23일)	윤영준 장로	채만기 집사	김병을 장로	윤영준 장로	담임목사		방원석 집사
5주(30일)	최상걸 장로	오동호 집사	강영성 장로	최상걸 장로	임만순 장로		채만기 집사